

소매유통업 코로나19 쇼크... '온라인쇼핑' 마저 잿빛 전망

업태별 부정전망 주요이유

- 대형마트**
 - 생필품 제외 전반적 매출 부진, 내방객 감소
 - 활동 자제로 계절상품(여행, 레저) 부진 전망
- 백화점**
 - 대면 접촉 상품군 매출 전반적 감소
 - 패션, 화장품, 식당가 등이 주로 부진
- 편의점**
 - 초중고 개학연기, 야간구매 축소 등 영향
 - 특수 입지, 관광지, 고속도로 매출 급감
- 슈퍼마켓**
 - 거주지 접근성 등으로 부정적 영향 덜 함
 - 전반적 소비부진으로 부정전망이 우세
- 온라인**
 - 당일배송 신선식품 호조, 일반 품목은 부진
 - 1분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긍정적 전망을 이어온 온라인·흡소핑도 부정적 전망으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2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66'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RBIS는 기준치 100 초과시 호전 전망, 미달시 악화를 전망한다. 대한상의는 2002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고 기준치 100에 훨씬

대한상의, 2분기 경기전망지수 '66' '코로나19' 발 소비심리 위축 원인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긍정적 전망을 이어온 온라인과 흡소핑도 부정적 전망(84)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대형마트(44), 편의점(55), 백화점(61), 슈퍼마켓(63) 등 그 외 업태에서는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분기 RBIS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업태에서 큰 낙폭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는 44로 세부업태 중 가장 낮았고 낙폭 역시 전분기(80) 대비 36포인트 하락해 가장 컸다. 백화점 업태 또한 우울한 전망치(61)와 함께 큰 폭의 하락(32p)을

보였다. 대형마트는 온라인쇼핑에 밀려 업황이 하락세인 데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봄철 인기를 끌던 여행·레저 관련 상품 판매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적 전망을 키웠다. 백화점은 지난 겨울 패션상품군의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 초 다소 회복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 업태는 전분기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55로 전망했다.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연기로 학교 상권도 침체해 시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에 이어 어두운 전망치(63)를 보였으나 다른 업태보다 낙폭(12p)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외출을 줄이는 탓에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슈퍼마켓 이용이 다소 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호조세를 이어오던 온라

인구 흡소핑의 전망치로 8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비대면 쇼핑 선호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보다 신상품 등 일부 생필품 외에는 코로나19 발 소비부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온라인을 제외한 소매유통업의 기초 체력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경년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위축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정리한 유통업에 애로·건의 사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개선 △공공 역사내 점포 임대료 감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익일 입금 시스템 도입 등 규제나 비용 문제를 덜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정부는 업계에서 대한상의를 통해 건의한 '대형유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지난 9일 수용하기도 했다. 업태별 업계 건의사항으로는 △온라인·흡소핑은 티켓할인 지원,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 배송료 지원

을, △슈퍼마켓은 내수활성화 위해 생필품 전국동시 세일추진을, △편의점 업계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완 주문도 있었다. 정부가 소비축진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2배(15~40% → 30~80%)로 확대했지만, 적용기한이 한시적(3~6월)이고 공제한도(200~300만원)는 올리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적용기한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현재 금액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휴대폰 결제한도의 상향도 요청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경우 1회 충전한도는 200만원인 반면, 이용자가 많은 휴대폰 결제는 월 60만원이 최대다. 높은 가격대의 제품, 콘텐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선 월 단위 지출 상한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그동안 유통업계가 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이슬 기자

3월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증가...4월 수출은 코로나로 걱정

신차에다 개소세 인하로 3월 내수 두자릿수 증가

3월 국내 자동차산업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신차 판매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덕에 전년 동월 대비 6.8% 오른 36만9165대를 기록했다. 내수 역시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발판으로 한

일부 업체의 공격적인 할인프로모션과 영업일 증가 등으로 17만295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트레일블레이저와 XM3 본격 판매, 기온 모델(그랜저, K7 등)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14만9912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수입차 판매도 증가했다. 토요타·닛산 등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7.8%)했으나 독일계 브랜드

(벤츠·BMW 등) 판매 회복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2만3044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와 친환경차가 수출을 견인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21만900대를, 수출 금액으로는 3.0% 증가한 3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SUV는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한 13만8837대가 수출돼 2016년 12월(13만9185대) 이후 역대 2번째 수출 최대치를 달성했다. 북미 수출은 최근 SUV 라인업 확대 등으로 19.5% 증가한 반면,

아시아는 반조립제품(KD) 수출 증가로 완성차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37.2%)했고, 아프리카(-63.9%)·중남미(-30.5%) 등도 경제회복 지연에 감소세를 지속했다. 친환경차(수소차·하이브리드·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부문에선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8% 증가한 1만7655대, 수출은 36.9% 증가한 2만6073대를 각각 기록했다. 3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SUV 판매 호조 등으로 0.5% 증가한 19억4000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3월 수출은 미국·유럽 코로나19 상황 악화 이전 수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물량의 생산·선적 등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중국 이외 미국·유럽지역 확산에 4월 이후 수출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고 관측했다. 강이라 기자

건보료 감면 효과 1인당 평균 9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 감면 효과가 1인당 3개월간 평균 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건보료 감면 효과와 관련 "총 1160만명 국민의 보험료가 3개월간 평균 9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분 대상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보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이외 모든 지역에서 건보료 하위 40%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인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서 약 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108만명이 건보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유나 기자



디저트, 솜사탕처럼 달콤한 포도 어떠세요? 지난 12일 오전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캔디하트, '코텐캔디' 포도와 함께 포도를 이용한 메뉴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 최대 4.81%p 인하

우체국보험이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지난 8일부터 인하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혜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했다.

약관(환급금)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국민들의 대출이 부담을 줄여주고,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예방·진단 관련 수출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85개사에 총 2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사업에는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에니젠(주) 등 8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 44개사, 전남 26개사 그리고 제주 15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 개발,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를 활용하여 통·번역 서비스 등 12개 분야에 5,000여 개의 각종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인된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수출액이 감소한 피해기업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진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긴급 편성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백화점

제 906회차 당첨결과 (2020년 4월 11일 추첨)

2 5 14 28 31 32 + 20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472,607,25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3	58,871,60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369	1,565,60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7,171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88,86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